



[산업] 갤럭시S23 역대급 성능에 판매가 인상설 08



Life

[라이프] 유통업계 VIP 문턱 다시 높아진다 L1



# 바른투자로 '함께' 녹색금융으로 '멀리' ESG경영으로 행복한 내일 만든다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 ESG 경영에 주력하고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금융 확대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ESG 체계 구축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이사회 아래 ESG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ESG 경영 기틀을 확립했다. ESG 위원회는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승인하고 분기마다 진행 현황을 관리 감독한다. ESG경영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는 ESG경영 혁신팀을 신설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실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ESG경영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KCGS)과 서스틴베스트로부터 ESG 종합등급을 B+, AA(탁월)를 받았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MZ세대 투자인식 보고서 발간 등으로 ESG 경영 노력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ESG 정보와 지속가능경영 추진 성과를 담은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금융 확대'라는 ESG경영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E), 지속가능한 책임경영(S), 투명한 지배구조 강화(G)를 ESG 3대 경영 전략 분야로 설정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적 가치,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건전한 지배구조라는 큰 틀에서 분야별로 한화투자증권의 ESG경영 성과 및 계획을 상세히 다뤘다.

이외에도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 '2022 MZ세대 투자인식 보고서, MZ는 어떻게 생각할까?'를 발간했다. 새로운 소비와 투자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MZ세대들이 가진 생각을 이해하고 바른투자로 안내하기 위해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한화투자증권 측은 설명했다.

한종석 한화투자증권 경영지원실 전무는 "한화투자증권은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파이낸셜 리터러시(financial literacy, 금융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 콘텐츠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ESG·임팩트 투자와 같은 바른 투자를 더 많이 알리고 지속 가능한 ESG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기후위기 대응 업무협약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금융감독원과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후리스크 관리모형은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을 예측해 기업에는 경영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관리토록 하고, 금융권에는 효율적인 자금 배분에 활용될 수 있도록



- 1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8일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금융감독원과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2 지난해 7월 여의도 한화투자증권 본사에서 그린에너지와 탄소중립분야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스마트한화KDB경기탄소중립ESG펀드' 결성총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3 한화투자증권 임직원들이 '블루밍데이'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ESG 위원회 설치 등 ESG경영 체계 구축 노력  
MZ세대 바른투자 돕는 전문 콘텐츠 지속 제공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금융 강화  
플라워박스·기부물품 만들어 힘든 이웃 응원



개발된다.

한화투자증권은 기후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손실 규모를 측정한다.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기후리스크에 직면한 시대에 금융감독원과 협약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어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한화투자증권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가치 창출로 지속 가능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으로 녹색금융도 강화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그린에너지와 탄소중립분야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스마트한화KDB경기탄소중립ESG펀드'에 총 1030억원을 결성했다. 이 펀드는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이 체결한 5조원 규모의 '그린에너지 육성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 일환이다. 저탄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에너지 친환경 기업과 그린뉴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펀드 운용을 위해 'ESG 투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ESG평가방법론'을 자체 개발해 신규 투자 시 3단계 ESG평가시스템을 도입했다. 매년 ESG평가 책임사로 투자 후에도 ESG관련 이슈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3회 이상 투자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삼진아웃 제도도 적용했다.

최용석 한화투자증권 IB본부 전무는 "앞으로 유망한 친환경 기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투자해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했다.

####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 진행

한화투자증권은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꽃으로 봉사하는 날 '블루밍데이(Blooming Day)'를 실시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블루밍 데이'는 임직원이 전문 플로리스트에게 교육받고 플라워 박스를 만든 후 응원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11월에는 한 달간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라폴(라이프포트폴리오) 프로그램'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라폴 프로그램' 사회공헌은 한화투자증권 임직원이 기부 물품을 직접 제작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자율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한종석 한화투자증권 경영지원실 전무는 "사회공헌에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 고객 모두가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김시우, PGA 투어 소니오픈 우승...2년 만에 정상 /사진 뉴스스  
▲'황인범 폴타임' 올림피아코스, 아리스 1-0 제압

▲'피겨 장군' 김예림, 동계유니버시아드서 韓 첫 동메달  
▲'ATP 투어 2승' 권순우, 세계랭킹 52위로...32계단 상승



▲빙속 김민선, 동계유니버시아드 여자 1000m 금메달 /사진 뉴스스  
▲장애인 26%, '주 2회 바깥서 운동'...코로나 전보다 늘어